

청년 채용시 연간 최대 960만원 지원

전주상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중소기업·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 이하 전주상의)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전주상의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업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

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다. 또한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된다. 예외인 경우로는 고졸이하학력, 고용특성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

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역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이 지원되며 연 최대 960만 원을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금년에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면 자격을 갖추게 되며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기업측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많이 참여해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문의는 전주상의 일자리지원센터(063-280-1153)로 하면 된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7일 개원 113주년을 맞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기념식을 진행했다.

“신뢰·존경받는 병원 될 수 있도록”

‘개원 113주년’ 전북대병원, 비대면 기념식 온라인 통해 우수·모범 직원 표창장 수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7일 개원 113주년을 맞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기념식을 진행하고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수 모범 직원 169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유희철 병원장은 “병원의 미래를 위한 진료와 연구, 교육의 3대 핵심 부문을 한층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경영철학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는 행복한 병원, 지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직원여러분들도 많은 바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고객을 응대해 진정한 환자중심의 병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수·모범직원 표창은 전

문의 2명(치과진료처 서재민 응급 의학과 오태환) 전공의 3명(소아청소년과 한승형 외과 정형은, 인턴 임태인), 행정직 1(의생명연구원 최인혁), 간호직 4명(분만식 김은정, 38병동 두현주, 58병동 강경옥, 응급실 김다은), 보건직 3명(영상의학과 정병화, 재활의학과 이동환, 핵의학과 김영수), 의공직 1명(물류관리과 김기철), 전산직 1명(전산정보과 박미란), 원무직(진료행정과 윤창희) 등이다.

또한 우수논문 및 포스터 포상을 받은 우수전공의 7명은 재활의학과 윤주열·조남규·노충희, 치과 보존과 최민지, 영상의학과 김민지·신동환, 정신건강의학과 노충희 등이며, 30년 이상 병원을 근무한 노교에 대한 장기근속 표창은 진단검사의학과 최선주 등 146명이 수여했다.

다가오는 감자 파종 시기

“봄감자, 그늘에서 싹 틔운 후 심어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봄감자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씨감자 관리와 싹틔우기 방법을 소개했다.

7월 농진청에 따르면 중남부 지방에서는 봄감자를 3월 중순~4월 상순에 파종해 여름 장마 전 수확하기 때문에, 생육기간을 늘리고 수확량을 높게 하려면 그늘에서 씨감자 싹을 틔운 후에 심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씨감자 싹을 틔워서 심으면 땅속에서 싹트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생육 초기 검은무늬썩음병 등 토양병해를 예방하고, 생육기간을 20~30일 더 확보해 수확량이 증가한다.

싹틔우기 방법으로는 우선 농가에서는 공급받은 씨감자가 상하거나 속이 검게 변해(육색신부) 증상이 보이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심기 20~30일 전에 그늘에서 싹틔우기를 시작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도록 30~50% 차광막을 덮은 우식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씨감자 싹을 틔운다. 파종에 알맞은 싹의 길이는 1~2cm 이내다.



또한 씨감자를 두꺼운 부직포나 스티로폼이 깔린 바위에 얹어 싹이 튼 다음 비닐을 씌워 습도에 따라 2~3일 엷게 씌고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2~3일에 한 번씩 위치를 바꿔준다. 아울러 그늘 싹틔우기의 적정 온도는 15~20도로, 낮에는 환기에 주의하고 밤에는 언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보온해준다. 하루에 한두 번 바닥에 물을 뿌려 80~9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준다.

한편 씨감자를 자를 때는 눈이 많은 부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잘라주고 한 쪽당 두 개 이상의 눈(맹아, 싹)이 들어가게 한다. 한 쪽당 적당한 무게는 30~50g 정도이며 간자 크기에 따라 2~4등분으로 잘라준다. 자르는 과정에서 무름병, 바이러스 등 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칼을 끓는 물에 담가 소독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진청 고품질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봄감자를 재배할 때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간자 싹을 손실하게 튀워서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오른쪽)이 7일 전북 청소년들을 위해 본점 1층에 개관된 '금융에듀테인먼트 JB플랫폼'에서 디지털 금융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은행 제공)

청소년 디지털 금융 체험 '이곳에 다 있다'

전북은행, 국내 최초 '금융에듀테인먼트 JB플랫폼' 개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7일 도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금융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본점 1층에 '금융에듀테인먼트 JB플랫폼'을 개관했다.

JB플랫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수하고, 전북의 랜드마크로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 가치관 제공 및 선도적 디지털 금융 시스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특히 서한국 은행장이 강조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JB의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표준 및 방향 설정과 디지털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미래의 고객인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금융을 선제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기술만 앞서서 것이 아닌 고객과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금융을 구현하기 위해 1년여의 준비 끝에 개관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은행계에서 최초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시킨 '금융에듀테인먼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관련 정보들을 놀이와 결합시켜 흥미를 유발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JB 머니를 확

득하라', 'JB 머니를 모아라', 'JB 마스터가 되자' 등 총 3가지 미션을 제시하고 각 미션 수행 후 개인별 마스터 밴드 태깅을 통해 JB 머니를 모으고 불릴 수 있다. 이후 마스터 밴드에 저장된 JB머니를 기부 등의 가치 소비 및 자산으로 남기면서 최종 마스터가 되는 프로세스로 자신만의 금융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공간 구성은 플랫폼 입장의 임팩트를 더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영상을 시청하는 'JAY-B 판타지'를 시작으로 디지털 뱅킹을 학습하는 '뱅크플랫폼'을 지나 전북은행의 비대면 금융을 체험하는 'JB뱅크 앱 플랫폼', 스마트 테이블과 인터랙티브 큐브를 활용한 JB테스트를 통해 나의 성향에 꼭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 받는 '파이낸스 큐브 플랫폼', 전 세계 다양한 화폐 정보와 실시간 환율을 인터랙티브 터치 월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글로벌 커런시 맵'으로 이어진다.

또한 환전 체험, 환율변동, 국가 간 화폐 가치의 차이를 VR을 통해 메타버스 속에서 체험하는 '메타버스 월드', 실질적인 금융교육과 플랫폼 체

험을 복합하는 공간인 '마스터 클래스', JB 플랫폼을 수료한 마스터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미디어 월에 전시하는 마스터 홀, 마지막으로 제이비 스토어와 '도메인트러'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체험할 수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 서한국 은행장은 "금융에듀테인먼트 JB플랫폼을 통해 디지털과 친숙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금융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가치관 확립과 실질적인 금융교육 및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관식 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체험을 시작으로 보육원 및 그룹 홈 아동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며, 개학 후 학교 및 기관 단체, 특히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체험할 수 있다. 진행 일정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팀, 1팀당 15명씩 운영된다. 대상은 초등학생 3학년~중학교 3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체험에 관한 자세한 안내나 이용을 원하는 학교 및 단체는 JB 플랫폼 홈페이지(jbplatform.jbba.or.kr)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063-250-7465)로 문의하면 된다.

오미크론 확산세... 코로나19 지역 감염 방지 총력

예수병원, 선제 대응단계 전환

예수병원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시기에 선제적 대응 단계 전환과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검출이 50%를 넘어섰고 전북에서도 우세종으로 확진자가 일평균(1.31, -2.06) 974 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자 유

증세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다. 예수병원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되는 전북 지역의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맞춰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선제대응, 원스탑 코로나 검사 실시, 방역지침 점검, 확진자·자가격리자 관리, 재택치료자 처방 및 담당자 배정, 민생안정 지원 등 분야별 대응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한 상온에서 10분 이상 고령자 유

증상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 선제검사로 분류되어 PCR 검사를 진행하며 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제검사를 제외하고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먼저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우정청, 현금배달 서비스 추진

최대 50만원까지 원하는 장소로 집배원이 직접 배달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임정규)은 농어촌 금융 소외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현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금 배달서비스는 우체국에 가입자 또는 신청인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집배원이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 등을 현금으로 배달해 주는 '용돈 배달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배달지역은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임정규 전북우정청장은 "교통이 불

편한 도서산간 지역 및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집배원을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우체국이 국민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재, 범죄, 위험시설 등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지역 안전 지키에 역할을 확대하고,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체국 현금배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국금융 고객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서 '은빛 레이스 축제' 잇따라

부영그룹 덕유산리조트, 스키대회 개최지 '각광'

지구촌 축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하면서 다시금 겨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 장에도 쟁쟁한 실력을 갖춘 전국 스키 어들의 화려한 '은빛 레이스 축제'가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각종 스키대회 일정으로 꽉 차 있다. 무주 덕유산리조트는 국내 최장 6.1km의 실크로드 슬로프와 국내 최고 경사도(경 30km에 달하는 총 34면의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전북일보배 스키대회를 시작으로 대구협회장배, 이달 7일 경북협회장배, 9일 전북도지사배, 10일 전주매일 반딧불배, 14일 광주협회장배, 17일 전북협회장배, 21일 경남협회장배 스키대회가 잇달아 개최된다.

부영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스키대회 개최지로 인기를 얻는 것은 무주 덕유산의 수려한 산악지형과 여유러 스



키어들에게 인기가 높은 뿐만 아니라 스키장 시설이 좋은 곳으로 평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가족호텔 리모델링을 통해 숙박 시설의 쾌적함도 더해졌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하면서 스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국내 최장 길이와 최고 경사도 슬로프, 국제 규격의 슬로프를 갖추고 있어 스키 매니아들이 '실연의 축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